기억해야 할 KIHA의 역사 : KIHA의 역사를 이어준 최영태 회장

6.25전쟁으로 인적•물적 피해. KIHA 활동 중단. 이후 조직 재건 추진
이때 최영태 박사가 KIHA 법인도장과 서류 등을 가지고 등장

KIHA의 정통성 확인 및 이후 회장으로 중추적 역할 전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을 때도 친일 신하들이 순종황제께 서류에 국새를 찍으라고 강요
국새(나라의 도장)
했지만 병풍 뒤의 순정효황후가 나와 치마속에 감춰 못 찍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여부는---
*출처:위키백과, 대지약황후 윤비(1964)
나라 뺏는데도 도장이 필요해?
국새는 하나뿐. 그게 안찍힌 문서는 무효가 되거든.
깜놀
뭔 걱정. 하나 더 만들어 쓰면 되지.
남의 도장 함부로 복제하면 안돼.
대표성이 있거든.
회사와 같은 법인의 도장은 등록한 인감도장만 법적 효력이 있어.
법원
그래서 법인
도장을 몰래 만들어 쓰다가 고소당했구나.
그렇지.
도장은 끊어진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도 해.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
?
KIHA가 좋은 예인데, 1947년 11월 창립 초창기부터 많은 일을 하던 중 6.25 전쟁으로 활동이 중지되거든.
뿔뿔이 흩어져 연락도 안 되고
인적·물적 피해에다
전쟁 후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전문가 집단의 활동 필요성이 커지면서 KIHA의 재건이 요구됐지만 자료 등 역사 찾기가 쉽지 않았어.
사고가 계속
이때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가이자 KIHA 초창기 총무를 맡았던 최영태 박사가 법인인감 도장 등을 가지고 나타난거야.
이 귀중한 걸
초창기 KIHA
법인인감도장, 이사들 인감도장, 서류 등
인감도장은 KIHA의 과거와 새 출발을 하나의 역사로 잇는 역할, 즉 정통성을 상징한거지.
인감도장
초창기
KIHA
재건
최영태박사는 1963년 재건된 KIHA 회장(1963~1980)을 맡아 KIHA를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중추가 되도록 이끌었고
KOREA
산업보건
KIHA
그 결과가 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전의 증진으로 나타난거야.
조그만게 대단하네.
도장님, 앞으로 아끼고 사랑할께요.
엄마 아빠의 수호천사 KIHA에도 인사
꾸벅
꾸벅